

목포해수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 여객선 이용객 증가 및 태풍·호우 대비 집중안전관리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운영자)은 여름 휴가철 여객선 이용객 증가와 태풍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알렸다.

여름철(6~8월)은 휴가철과 맞물려 여객선 이용객이 급증하고 태풍·호우 등 기상악화와 성어기 조업일수 증가로 인해 해양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연안여객선의 승하선 절차 준수, 구명설비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본격 휴가 기간에는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여객선 이용객 편의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태풍·호우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항만·부두시설 및 표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내 쓰레기 대량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목포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철경 (061-280-1640)
		담당자	주무관	고민선 (061-280-1647)